

민주당 親盧 세력 궤멸직전

핵심 인사 잇단 구속 정치적 기반 붕괴

내년 지방선거 앞둔 세 확산 작업 무산

“박연차 게이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노(親盧) 진영에 치명타를 가하면서 정치권의 지형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친노 진영의 붕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친노 핵심인사들의 잇따른 구속과 노 전 대통령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로 친노 진영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다.

당장 정세균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친노 진영 인사들이 박연차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광재 의원이 구속된 데 이어 안희정 최고위원, 서갑원 원내수석 부대표 등은 박연차 게이트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여기에 정 대표 체제를 받치고 있는 일부 386 의원들도 친노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진 상황이다.

더욱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측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가 친노 진영을 정세균 대표 체제를 떠받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당권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당내 비주류에서는 4·29 재보궐 선거 이후 지도부 총사퇴를 통한 조기전당대회까지 주장하고 있어 한동안 친노의 입지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박

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것이 확인될 경우,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친노 진영의 정치적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안희정 최고위원이 주도하고 있는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는 올해부터 친노 진영의 세 결집 및 확산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는

당초 올해 2월부터 2010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지방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내부 추동력 부족에다 박연차 게이트까지 터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권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모색하는 참여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청정회’ 역시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청정회 회원은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는 친노 세력이 지방선거 등을 통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앞으로 친노를 내걸고 무언가를 도모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차 게이트 파장으로 친노 세력의 정치적 기반 붕괴는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있는 지역 친노 성향 인사들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은 대부분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기반으로 정치 이력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출마를 노리고 있는 일부 친노 인사들의 중도 포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연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비밀리에 소환해 조사한 가운데 김해 봉하마을 사저가 침묵에 싸여 있다.

권여사 부산지검 특별조사실서 11시간 조사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곳은 부산지검 10층 특별조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에 이어 권 여사가 두 번째이다.

12일 부산지검과 노 전 대통령 측의 말을 종합하면 권 여사는 지난 11일 오전 9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해 10시30분경 부산지검 청사 10층 특별조사실에 도착했다.

봉하마을에서 부산지검까지 승용차로 1시간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권 여사는 사저에서 나와 검찰로 곧장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부산지검 10층은 특수부 전용 공간으로 청사 입구의 보안 시스템과 별도로 층 자체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곳이다. 특별조사실은 8m가량 크기로 폐쇄회로(CC)TV 등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다.

부산지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승강기를 타고 특별조사실로 향하면 민원인은 물론 검찰청 직원들의 시선조차 피할 수 있어 검찰은 이 경로로 권 여사를 안내했을 가능성이 크다. 권 여사에 대한 조사는 대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 두 명이 전담했으며, 부산지검은 특수부 검사 1명과 일반 직원을 배치해 청사 시설과 차량 등 조사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다.

이번 조사에는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

서실장이 권 여사의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했다고 문 전 실장이 확인했다.

검찰은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권 여사의 소환 사실을 철저히 비공개로 했다.

심지어 부산지검 핵심 간부를 제외한 검사와 직원 대부분이 대검 발표 전까지 권 여사의 방문 사실을 까맣게 모를 정도로 철통 보안 속에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자책감 등으로 권 여사는 검찰조사 내내 몹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권 여사는 소환된 지 11시간10분 만인 오후 9시40분경 부산지검 청사를 나와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노무현, 권여사 돈받았다는 사실에大怒

문재인 “권여사 13억 받아”

참여정부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한 100만달러 외에 나머지 3억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박연차 회장으로터 청와대 측이 받았다는 돈의 행방에 대해 이같은 밝힌 문 전 실장은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 이런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 부터 2006년 8월 현금 3억원, 2007년 6월 100만달러를 받아 이 중 3억원을 개인 뭍으로 챙기고 100만달러는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 전 실장은 지난 11일 권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권 여사는 이번 일에 대한 자책감과 격정 때문에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라며 “검찰이 이런저런 배려를 해주지 중간중간 몇 번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측근은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

가 13억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기운이 다 빠져 탈기(脫氣) 상태까지 갔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심한 허탈감에 빠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 전 실장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박 회장과 연철호씨간 500만달러 거래에 연루된 의혹과 관련,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만나거나 움직이거나 한 사실이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 관련은 없다”며 “500만달러는 노 전 대통령이 물론 건호씨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쟁점은 ‘盧 100만달러 요구했나 안했나’

■ 600만 달러 진실 공방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를 돌려 싸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 간 팽팽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盧, 100만달러 직접 전화로 요청(?)=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돈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뒤 온 검찰도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

졌다. 직원 130명을 동원해 이틀 만에 원화 10억원을 100만 달러로 급히 환전하고 차용증도 없이 전달한 데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저의 집(권양숙 여사)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이나, 권 여사가 11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 회장에게 부탁해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상반된다.

◇100만 달러는 누가, 왜 건네받았나=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100만 달러를 건네는 과정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박 회장이 자신의 자금관리인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 지시했고 정 사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여행용 가방에 돈 100만달러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누가 건네받았는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은 대통령의 ‘집사’인 정 전 비서관이 100만 달러

를 받았는데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0만 달러 아들에게 전달했나=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100만 달러를 당시 유학 중이던 아들 건호 씨의 유학비와 생활비로 썼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박 회장이 100만 달러를 청와대로 전달 한 직후인 2007년 6월30일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과테말라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도중에 미국 시애틀을 경유하면서 건호 씨를 만나 전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박회장,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해”

노 전 대통령 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1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자신의 요구로 1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보도와 관련, “보도를 보니 박 회장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부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글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기정사실로 보도되고 있으니 해명과 방어

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사실이라면 저는 박 회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며 “참 쟁점이 많은 일인 것이나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박 회장이 검찰과 정 정부로부터 선처를 받아야 할 일이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진술을

들어볼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 노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한 100만달러와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구차해 이렇게 민망스러운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지고 가자고 사람들과 의논도 해보았지만 결국 사실대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1회 당양대나무축제

2009. 5.2(토)~5.7(목)

1. 축제기간: 2009년 5월 2일(토) ~ 5월 7일(목)

2. 축제장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당양대나무축제장

3. 축제내용: 당양대나무 소개, 당양대나무 만들기, 당양대나무 요리 만들기, 당양대나무 놀이, 당양대나무 전시, 당양대나무 판매, 당양대나무 체험, 당양대나무 공연, 당양대나무 전시, 당양대나무 판매, 당양대나무 체험, 당양대나무 공연

4. 축제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5. 축제대상: 누구나

6. 축제문의: 담양군청 문화관광과 (061-270-2111)

7. 축제홈페이지: www.dangyangfestival.com